

지역 메아리

15만 자족도시 실현 '가시화'

박성일 완주군수 쟁점 토론회... 현안사업 점검·전략 공유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실시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혜영)는 19일 모산경로당을 시작으로 75세 이상 어르신과 거동불편세대를 방문하여 커트·염색 등을 해드리는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사업'을 주민자치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이번 사업은 관내 미용실이 없어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그분들의 미용관리 및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주3회(월·수·금) 26개 경로당 및 거동불편세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약100여명에 대해 커트·염색·손 미용 관리 등 이·미용 서비스를 4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 주민자치위원 21명은 오후 1시 모산경로당에 도착해 모여계신 어르신에게 행사의 취지를 설명해드리고 경로당 11명, 거동불편 2세대에 대해 3시간여에 걸쳐 이·미용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간단한 다과를 함께 나누며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소 폐렴구균 무료접종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폐렴, 뇌수막염, 중이염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초기에는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특히 65세 이상 노년기에 발병하기 쉽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달리 65세 이상 연령에서 단 1회 접종만으로도 폐렴구균 감염증을 50~80%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만 65세 이전 접종경험이 있을 경우 5년경과 후 접종을 하면 되므로 보건소에 접종력을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꼭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며 자족도시 도약을 가시화했다.

19일 완주군은 팀장급 핵심 현안·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완주시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과 부서별 현안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팀장급 토론회는 분청 팀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했으며, 2025년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고 부서별 핵심사업 추진사항의 공유와 부서 간 연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쟁점토론회에서는 '인구 15만 도시' 실행전략 6대 의제에 대한 자유 심층 토론회와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한 실행전략 토론회가 이뤄졌다.

완주군의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실행전략 6대 의제는 도시기반, 산업기반, 인구정책, 농업융성, 삶의 질, 소셜굿즈다. 또한 팀장들과의 업무추진 예의사항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완주군이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며 자족도시 도약을 가시화했다.

에 대한 소통도 진행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그간 주민들과 함께 땀 흘려 노력해온 사업들이 전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로 이어져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관심이 높아질수록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숙제도 상당수다"며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시를 목표로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나아가자"고 강조하고, 15만 자족도시 완주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농업경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농업 발전 방안 모색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전문농업경영인의 경영리더십 및 성공 전략 확보와 미래 김제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일간 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이하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전문농업경영인의 경영리더십 및 성공 전략 확보와 미래 김제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일간 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이하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업경영인들의 효과적인 농산물 유통을 위해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2시간에 걸친 강의와,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진 농업경영인이 되고자 농산물 브랜드 파워 만들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야간에는 김제시 농업·농촌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이 한데 모여 김제시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정영상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은 "농업이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에 가운데 김제를 대표하는 농업인들이 만나 화합을 다지고 김제 미래 농업의 발전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농업 공동체정신으로 새로운 농업인상을 정립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김병철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지역 농업·농촌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중심이 되어 김제시 농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는 약 2000여명의 후계농업경영인들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로써, 김제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 선정

완주군, 4개사업 7000여만원 국비 확보

완주군이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에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7000여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19일 완주군은 누에, 이서문화의 집, 스토리컬처, 가인무용예술원이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꿈다락'은 '나의 비밀스런 꿈의 아지트'라는 뜻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매주 토요일 학교 밖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 사업 중 누에는 2017년에 이어 지속 지원사업으로 '다빈치 코딩(Davinci Coding)', 르네상스를

맞이하'를 진행한다. 코딩, SW, 문화예술을 접목한 융합형 통합문화예술교육으로 지역아동들의 문감을 자극해 상상력과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및 감수성을 개발하고 소통하는 힘을 기른다.

이서문화의집은 신규사업으로 '가족의 사랑으로 도예를 보다, 도란도예'를 진행한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했던 도자기를 벗으며 대화를 나누고 발표도 하며 가족끼리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다양한 토요일 프로그램을 계기로 학생과 가족들이 소통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3가구 공급

완주군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13가구가 공급된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 모집공고(2018.02.28)를 내고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 다.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3인 이하 가구 341만9110원)이면 신청가능하며, 올해 입주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

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대는 사업이다.

8500만원 한도 내 전세주택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원대보증금과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1~2%)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뒤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30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김제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축산농가에게 이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및 가축분뇨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조치이다.

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종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지침의 한시적 유예가 이달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족분뇨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3월 24일까지 김제시청 환경과에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추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향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